

# 피부색과 인종

## Skin Color and Race

저자 | 니나 자블론스키(Nina G. Jablonski)  
번역 | 이현지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 이 번역논문은 [2022년 아카루트 해외논문번역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저작권은 아카루트에 있습니다. 인용하실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세요.

## 피부색과 인종 (Skin Color and Race)<sup>1)</sup>

니나 자블론스키(Nina G. Jablonski)

\*번역: 이현지 (성공회대학교 열림교양대학)

### 개요

서양 과학의 전통에서 인간의 피부색은 사람들을 그룹으로 분류화하는 주요한 신체적 기준이 된다. 린네(Linnaeus)의 초기 분류에서 피부색이라는 라벨은 중립적인 기술 어구가 아니라 기술된 그룹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 논문은 역사에서 피부색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단일 특성과 관련한 역사의 발자취가 어떻게 인간 다양성에 대한 후속 개념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준다. 피부색은 다른 신체적, 행동적, 문화적 특성이 연결된 핵심적 특성이었다. 대부분의 유럽 계몽주의 자연학자들과 철학자들에게 피부색이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의 내적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즉, 피부색은 결과이자 원인이었다. 피부색과 인간의 다양성에 관한 초기 연구는 '백인' 유럽인과 비백인 사이의 양극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아프리카인에 대한 흑인성의 기원과 의미를 설명하는 데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흑인과 어둠에 대한 부정적인 연관성은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과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에게 지속해서 영향을 미쳐 아프리카인을 완전한 인간이 아닌 개인의 주체성이 부족한 존재로 여기게끔 했다. 피부색, 각 인종의 순혈성, 그리고 아프리카인의 낮은 위상에 대한 흄과 칸트의 견해는 대서양 노예무역을 유지하고 동산 노예제를 옹호하려던 유럽과 아메리카의 다양한 정치, 경제, 종교적 지지층들을 뒷받침해 주었다. 피부색에 따른 인종에 대한 정신적 개념과 고정관념은 노예무역과 노예제가 폐지된 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강하게 남아 있었다. 피부색에 따라 우월한 밝은 유색인에서 열등한 어두운 유색인으로 배열된 인종 위계 개념은 17세기 후반에 굳어졌고 이후 다양한 세력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인종주의, 컬러리즘 및 암묵적 편견의 발달로 나타나게 된다. 이제 모든 수준의 공식교육과 비공식 교육에서는 피부색의 진화와 피부색에 기반한 인종 개념의 역사적 발달에 관한 작금의 지식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컬러 밈(color memes)과 인종 관념이 인간의 행동 양식과

1) Jablonski, N. G., Skin color and race,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75(2), 2021, 437-447.

과학 수행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 키워드

기후, 컬러리즘, 인간 분류, 암묵적 편견, 타자화, 피부 색소 침착, 분류학

## 1. 들어가며

인간을 피부색에 따라 여러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만큼 사람들은 거의 피부색과 인종의 연관성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인종이 확립된 역사와 이 과정에서 피부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인종 개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색을 기반으로 명명된 인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신진 학자들의 새로운 지식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으므로 다시 정리하고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인종 개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피부색이 담당하는 역할은 오랫동안 인식됐으며 입문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고는 하지만, 오늘날의 사상과 연구가 피부색에 기반한 인종 개념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누가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를 아는 것은, 색에 기반한 인종 개념이 과거 유럽과 식민지 사회 및 과학의 조직원리로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는 것과 직접 연관되므로, 본 논고에서는 색에 기반한 인종의 생성에 대한 증거를 연대기적으로 전개하면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피부색과 인종이 반세기 이상에 걸쳐 학술 논문과 편저의 반복적인 주제였다(예: Curran, 2011; Franklin, 1969; Guterl, 2001; Mead 외, 1968; Montagu, 1964; Wheeler, 2000)는 사실은 인종에 대한 사고와 명명된 인종이 인간사에서 얼마나 오래 존속되고 끈질기게 살아있는가를 반증한다. 많은 나라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생의학적인 지지층들이 인종 그리고 명명된 인종들을 계속 사용하고 강화하는 것은 이러한 현상에 지속적인 신뢰성을 부여하고, 나아가 그들의 탐구와 서술을 더욱 정당화한다. 이 논문의 역할도 바로 거기에 있다.

## 2. 기표로서의 피부색

인종적 차이로 분류되는 사람들 간의 차이는 보통 신체에서 생래적으로 파생된 것으로 여겨진다(McCoskey, 2012). 그러나 특정한 신체적 속성을 인간 차이의 기표로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과정 안에 있다(Omi & Winant, 1994).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타자화가 항상 신체적 특성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자화의 가장 이른 역사적 사례 중 몇몇은 고대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때는 의복, 언어 또는 특정 직업에 근거하여 강력한 '인종적' 차이가 만들어지고는 했다(McCoskey, 2012). 신체의 특정 영역 중, 피부색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널리 사용돼 온 것 중 하나다. 색상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색의 의미는 우리의 경험과 연상을 통해 얻는다. 이런 점에서 "색상은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메시지 전달자로서는 중요하다"(Bastide, 1968, p.34)라는 바스티드(Bastide)의 말은 꽤 인상적이다. 인간을 분류하기 위해 피부색을 사용해온 역사를 살펴보면, 피부색이 지리적 기원과 환경의 지표에서 문화 및 행동적 차이의 기준으로, 그리고 역할 기대를 정당화하는 기준으로 변모해 온 것을 알게 된다(Dikotter, 1992). 피부색은 문화적 적응을 통해 실제 사회적, 문화적, 유전적 차이를 나타

내는 공개적인 표식이 되며, 예상 행동과 반응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인지의 고착화로 연결된다(Eberhardt, 2005; Eberhardt 외, 2004; Eberhardt & Fiske, 1998; Guterl, 2001). 우리 학생들만 이러한 사실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다. 과학자들도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만은 않다. 인종적 차이에 대한 인지가 제시되면 인종에 대한 인식도 뒤따르기 마련이다(Bourdieu, 2000). 객관적 평가와 주관적 판단의 산물인 실용적인 분류학이 정립되고 경험의 반복으로 강화되면서(Bourdieu, 2000), 이러한 분류는 과학자의 기준체계에서 고질적인 요소가 된다(Bliss, 2012).

이 논문에서는 인간의 피부색이 지닌 다양성에 대한 설명과 이를 서구적 맥락에서 인간 분류에 적용한 방식에 관해 논한다. 피부색과 기타 신체적 특징에 대한 인식은 중국과 인도에서도 독립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인간 집단 간의 뚜렷한 구성요소가 형성되었다(de Bary 외, 1958; Dikotter, 1992; Jablonski, 2012b). 특히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서구와 비서구의 인식 및 분류 체계 간의 교차점은 대단히 흥미로우며 현대 생활의 여러 측면과도 관련이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다.

## 2.1. 피부색에 따른 초기의 인간 분류

인간에 대한 가장 초기의 과학적 분류에서는 사람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특징으로 피부색을 사용했다. 이러한 분류 중 첫 번째는 칼 린네(Carl Linnaeus, 1707-1778)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1735년 『자연의 체계(Systema Naturae)』의 초판에 게시되었다(Linnaeus, 1735). 이 저서에서 린네는 사람들을 호모 유럽인 백색, 호모 아메리카인 홍색, 호모 아시아인 갈색 및 호모 아프리카인 흑색의 네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 최초의 공식적인 분류학에서 인간은 피부색과 지리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뉘게 된다. 이것은 그가 오늘날 표준이 된 이명법 체계를 도입하고,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는 명명된 아종으로 분류하기도 전의 일이었다(Marks, 2007). 1758년 『자연의 체계』 10판을 낼 때까지도 린네는 지정된 네 가지 아종을 주요 색으로 구분하길 고수했으며 각각의 특징을 열거하여 정신적 특성, 의복 방식 및 습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체적 특성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했다(Linnaeus, 1758)(그림 1). 그는 또한 당시 다섯 번째 변종인 호모 사피엔스 몬스트로서스(Homo sapiens monstrosus)를 추가했는데, 이 종은 대부분 특이한 해부학적 특성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린네가 기괴한 매력을 느꼈던 종이였다(Broberg, 1983). 린네의 기질 및 관련 피부색의 배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특정 원소(공기, 물, 불, 흙)가 특정 기후, 지리 및 체액(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Svensson, 2015)과 관련되어 있다는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및 갈레노스(Galen)의 체액 이론에 대한 그의 해석을 반영했다는 점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후와 지리는 좋은 성격이나 나쁜 성격의 발달과 피부색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체액을 신체 내에 생성한다(Hippocrates & Adams, 1849; Isaac, 2004). 린네가 특정 피부색과 기질을 지닌 개별 인간 아종들을 병치한 것, 즉 아메리카누스(Americanus)는 붉은색과 다혈질, 유로페우스(Europaeus)는 흰색과 담즙질, 아시아티쿠스(Asiaticus)는 노란색과 우울질, 아페르(Afer)는 검은색과 점액질이라는 것은 차후의 자연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인간의 물리적 다양성을 설명하는 방식, 그리고 피부색을 성격의 특정 속성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린네의 인종 범주(racial categories) 또한 오늘날 사람들이 인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관념에 린네 자신이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Eberhardt & Fiske, 1998).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전개는 인종 분류를 정당화하고 영속화하며 인종을 하나의 개념으로 계속 구체화한다(Eberhardt & Fiske, 1998).

MAMMALIA. PRIMATES. Homo 29

*Americanus* α. rufus, cholericus, rectus.  
*mus.* *Pilis* nigris, rectis, crassis; *Naribus* patulis; *Facie* ephelctica; *Mento* subimberbi.  
*Pertinax*, contentus, liber.  
*Pingit* se lineis dardaleis rubris.  
*Regitur* Conſuetudine.

*Europæus* β. albus, ſanguineus, toroſus.  
*Pilis* flavicentibus prolixis. *Oculis* caeruleis.  
*Lævis*, argutus, inventor.  
*Tegitur* Veſtimentis arctis.  
*Regitur* Ritibus.

*Aſiaticus* γ. luridus, melancholicus, rigidus.  
*Pilis* nigricantibus. *Oculis* fulvis.  
*Severus*, ſaſtuosus, avarus.  
*Tegitur* Indumentis laxis.  
*Regitur* Opinionibus.

*Afer* δ. niger, phlegmaticus, laxus.  
*Pilis* atris, contortuplicatis. *Cute* holoſericea, *Naſe* ſimo. *Labiis* tumidis. *Feminis* ſinus pudoris; *Mammae* lactantes prolixæ.  
*Vaſer*, ſegnīs, negligens.  
*Ungit* ſe pingui.  
*Regitur* Arbitrio.

*Monſtro* ε. ſolo (a) & arte (b, c,) variat:  
*ſus.* a. *Alpini* parvi, agiles, timidi.  
*Patagonici* magni, ſegnes.  
 b. *Monarchides* ut minus fertiles: *Hottentotti*.  
*Jancea* puellæ abdomine ſtenuato: *Europææ*.  
 c. *Macrocephali* capite conico: *Chineſes*.  
*Plagioccephali* capite antice compreſſo: *Canadenſes*.  
*Habitat* intra Tropicos *Palmis* *Lotophagus*.  
*Hospitatur* extra Tropicos ſub novercante *Cerere*, *carnivorus*.

DE-

*que cogitas eſſe; cito natura revocavit & condet; Mori omnes æque vocat; iratus Deus propitiuſque moriendum, Senec. II; 29.*  
*Memento mori!*

*Noveliter:* Te audacis nature miraculum, Animalium principem, cujus cauſa cuncta genuit natura, eſſe Simium animal ſens, ridens, melodum, loquens, docile, judicans, admirans, ſapientiſſimum; ſed fragile, nudum, ſæpe natura interme, ad omnem fortune contumeliam proſectum, alienæ o-

그림 2 1766년에 발행된 『자연의 체계』(Linnaeus, 1766)에 실린 칼 린네의 인간 분류<sup>2)</sup>

2) 역자주: 위에서부터, 아메리카누스(Americanus)는 α로, rusus(빨간), cholericus(다혈질) 등과, 유로페우스(Europæus)는 β로, albus(하얀), sanguineous(담즙질) 등과, 아시아티쿠스(Asiaticus)는 γ로, luridus(노란)와 melancholicus(우울질) 등과, 아페르(Afer)는 δ로, niger(검정)과 phlegmaticus(점액질) 등과 연결되며 마지막으로 몬스트로(Monstro)는 ε로 구분되어 있다.

린네의 저서 10판에 제시된 인간 분류의 세부 사항에는 여전히 해석적 의문이 남아 있는데, 그중 하나는  $\alpha$ ,  $\beta$ ,  $\gamma$  및  $\delta$ 에 따른 아종 순서의 지정과 명칭, 그리고 이것이 서열화된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다. 린네가 이 점에 대해 드러내놓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린네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로는 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세상의 다양한 개체들을 거쳐 무기물에 이르기까지 선형적인 일련의 단계로 배열되어 있다’라는 (Brace, 2005, p.28) 선형적인 자연의 사다리(*scala naturae*)라는 계몽주의의 지배적인 견해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가 10판에서 분류한 것을 초판과 비교해 볼 때, 10판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위치가 바뀌어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분명 린네는 그룹이 나열되는 순서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 린네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유럽인보다 앞인 첫 번째 자리로 올린 것은 린네의 제자 중 한 명인 페르 칼름 (Peter Kalm[Pehr Kalm])이 1750년 북미를 방문했을 때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크게 감명을 받은 후 갖게 된 긍정적인 견해에서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Svensson, 2015). 두 번째 의문은 아시아인의 피부색에 대한 그의 설명이 어두운 갈색인 ‘푸스쿠스(*fuscus*)’에서 노란색 또는 누런 ‘루리두스(*luridus*)’로 바뀐 것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린네가 노란 담즙 체액을 대개 피부색이나 동아시아인으로 인식되는 것과 동일시하고, 집단의 색을 밝게 하여 그들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시되었다(Kowner & Skott, 2015). 린네의 분류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는, 그저 네 개의 색으로만 구분된 아종을 지정하여 인간 유형을 단순화해버린 것인데, 이는 그가 지정한 네 개의 큰 지리적 영역의 다양성은 보여주지 않은 셈이다. 그 시대의 많은 자연학자와 마찬가지로 린네는 서유럽 밖으로는 모험을 떠난 적이 없었고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경험도 거의 없었다. 그는 주로 그의 제자, 스웨덴과 네덜란드의 상인, 그리고 탐험가와 여행자의 일기와 기록에서 유럽 밖의 사람들이 지닌 외모와 습관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가 다른 그룹이 아닌 일부 그룹을 설명하기로 선택한 이유(예: 동양인 대 남아시아인 또는 동남아시아인)는 다소 자의적이며 사람들에게 대한 외모의 구분은 지식보다는 오히려 린네가 살았던 시대에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 널리 퍼진 무역 방식과 더 관련이 있었다(Kowner & Skott, 2015). 명명하기 위해 선택된 집단의 자의성은 계몽주의 시대에 인간이 분류된 특징 중 하나다(예: Molnar, 2005에서 표 1-1, Barbujani, 2005에서 표 1 참조). 그룹의 정체성과 명칭의 특성(인종, 변종 등)은 종종 세계의 인간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보다는 해설가의 철학적 성향과 지리 및 경제 상황에 의해 결정되었다. 18세기 자연학자들이 인류를 분류한 또 다른 방식은 다른 논문을 통해 비평되었다(Blanckaert, 1993; Eze, 2001; Greene, 1954; Marks, 2007; Sussman, 2014). 그러한 비평 중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피부색 차이의 본질과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다. 이들 중 가장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 중 한 명은 조르주루이 르클레르 드 뷔퐁 백작 (George-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1788)이었다.

뷔퐁은 기후와 지리가 인간의 얼굴 생김새와 해부학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는 그가 인간 다양성에 대한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에 몰두하게 했다. 여행자, 탐험가, 상인과 동료 자연학자들의 기록을 통해 인간의 외모와 관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뷔퐁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모든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인류는 원래 서로 다른 종으로 구성되지 않았었다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인간은 원래 하나의 개별 종만 있었는데 이후에 번식하게 되고 지상에 흩어지게 된

다음 기후의 영향, 음식의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전염병의 영향, 그리고 서로 어느 정도 닮은 개인들이 무한히 다양하게 혼합되면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Buffon, 1853, p.135).

린네와 달리 뷔퐁은 과정(Sussman, 2014) 또는 지금 우리가 적응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뷔퐁의 세 가지 주요 그룹 또는 인종은 색상으로 구별되었는데, 각 그룹에는 비슷한 피부색을 공유하는 여러 변종이 포함되었다. 피부의 색들은 사람들이 살았던 환경을 순차적으로 반영했다. 그는 위도 40도에서 50도 사이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 형태를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인간의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피부색에 대한 우리의 사고가 형성되어야 한다”(Buffon, 1853, p.134)라고 기술했다. 뷔퐁의 ‘백인 또는 코카서스인’ 인종은 피부가 ‘하얗거나 일반적으로 흰색에 가까운 것’(Buffon, 1853, p.138)으로 묘사되었으며 여기에는 세 개의 큰 가지(아람인(Aramean); 인디언, 게르만과 펠라스기인(Pelagic); 스키타이인과 타타르인)와 두 개의 변종(말레이인; 오세아니아인)이 포함되었다. 그가 ‘황인 또는 몽골인’으로 구별한 인종은 ‘일반적으로 올리브색의 콤플렉시온(complexion)<sup>3)</sup>’(Buffon, 1853, p.139)으로 구별되었으며, 만주족, 시닉(Sinic)<sup>4)</sup>, 휘페르보레아(Hyperborean, 역자: 극북인이라고도 한다) 또는 에스키모, 아메리카인, 몽골-펠라기안(Mongol-Pelagian)<sup>5)</sup> 또는 캐롤라인(Caroline)이라는 다섯 개의 가지로 구성되었다. 그가 ‘흑인 또는 멜라니안’으로 구별한 인종은 ‘검거나 거무스름한’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며(Buffon, 1853, p.140), 에티오피아인, 카프리카(Caffre), 핫텐토티(Hottentot), 파푸아인(Papuan), 태즈메이니아인(Tasmanian), 알포러스-엔다메네(Alfourous-Endamène)<sup>6)</sup>, 알포러스-오스트레일리아인(이라는 일곱 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뷔퐁이 본 이상적인 피부색은 매우 밝지도 어둡지도 않았지만, 주로 온화한 기후의 영향을 반영한 색이었다. 과도한 더위와 과도한 추위, 그리고 주로 야외나 실내에서 생활하는 삶은 뷔퐁이 이상적으로 본 피부색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극심한 더위는 사람들의 피부를 검게 만드는 반면, 온화한 기후는 더 밝은 색조를 만들어냈다(Buffon, 1853, p.133-134). 도시에서의 삶은 인종과 무관하게 더 밝은 피부로 이어졌는데, 그 이유는 이곳 사람들에게는 ‘날씨로 인한 부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모든 편의가 제공되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Buffon, 1853, p.134) 삶을 즐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극단적인 더위와 추위의 영향에 대한 히포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결론과 표면적으로는 유사하지만(Isaac, 2004), 뷔퐁이 색상을 기반으로 그룹화한 세부 사항은 전 세계의 다양한 피부색에 대한 더 포괄적인 지식과 함께 특정 인종 내에서 피부를 더 어둡거나 더 밝

3) 역자주: 영어 complexion은 ‘피부색’에 가장 가까운 근대 라틴어 콤플렉시오(complexio)에서 왔으며, 안색, 혈색, 체질, 기질 등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모두 정확하지는 않다. ‘연결’, ‘조합’이라는 뜻으로 갈레노스가 집대성한 4 체질론의 핵심 개념이다. 염운옥(2021), *낙인찍힌 몸*, 돌베개, p.39.

4) 역자주: 1660년대, 중세 라틴어 시니쿠스(Sinicus)에서 유래한 용어로, 지금의 중국인을 의미함.

5) 역자주: ‘펠라기안(Pelagian)’은 매우 다양한 신체를 지니고 있으며, 예술과 문명, 특히 문명에서는 말레이-폴리네시아인(Malayo-Polynesians)보다 훨씬 열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Douglas, B., & Ballard, C. (2008). *Foreign bodies: Oceania and the science of race 1750-1940*, Anu Press, p.132.

6) 역자주: ‘알포러스(Alfourous)’는 호주 원주민인 하라포라스(Haraforas) 또는 알포어(Alfoërs)라고도 한다. 알포러스와 엔다메네(Endamène)는 뉴기니아(New Guinea)와 뉴 홀랜드(New Holland)의 ‘원주민’으로 추정되는 흑인을 일컫는다. Douglas, B., & Ballard, C. (2008). *Foreign bodies: Oceania and the science of race 1750-1940*, Anu Press, p.122.

아지게 하는 요소, 주로 더위, 추위, 건조함과 같은 공통적인 물리적 요인들에 대한 그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최근 수십 년에 걸쳐 밝혀진 자연 선택에 의한 피부색의 수렴 진화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피부색을 인간의 신체적 다양성에 대한 고찰로 보았던 몇몇 계몽주의 사상가 중, 이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1724-1804)는 피부색의 의미에 대한 그의 해석과 더불어 인종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사용한 점, 그리고 인류를 명시적이고 위계적으로 배열한 점 등으로 본 논문에서 고려할 가치가 있다(Eze, 1995; Jablonski, 2012b). 칸트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뿌리에서 서로 다른 종족으로 파생되어 기후와 토양의 조건에 따른 다양한 지역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칸트는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과 문명을 발전시키는 능력이 이러한 환경에 의해 반영되었다고 보았기에 인간을 다르게 만드는 환경에 평생 깊은 관심을 가졌다(Eze, 1995; Jablonski, 2012b). 인종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그의 견해는 수년에 걸쳐 변했지만, 피부색과 성격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한 그의 믿음만은 확고했다. 피부색은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도덕적 자질’ (Eze, 1995, p.219)의 증거였고 궁극적으로 자유 의지의 증거였다(Sussman, 2014). 칸트는 1775년부터 1778년까지의 연구를 통해 백인, 흑인, 혼닉(아메리카인을 포함한 몽골인 또는 칼무크인) 그리고 힌두인 또는 힌두스타니인(Bernasconi, 2001, 2002; Eze, 1995, 2001)이라는 네 개의 인종을 기술했다. 칸트는 피부색을 ‘유전으로 확실하게 전해지는, 같은 혈통을 지닌 종족 사이의 계급 구분’ (Kant, Bernasconi, 2001, p.14에서 인용)이라고 하면서 뷔퐁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인종에 대한 정밀하고 엄격한 과학적 개념을 구축했다. 칸트는 네 종족의 근원을 모두 포함하는 최초의 인간종을 고안했다. 환경 조건의 영향으로 그 근원 중 하나가 실현되었고, 원래 종족으로의 회귀나 다른 인종으로의 변화는 있을 수 없었다(Bernasconi & Lott, 2000). 그러므로 인종은 고정된 불변의 것이었다. 최고의 재능과 최상의 도덕적 행동 및 문명적 표현이 발달할 수 있었던 조건은 유럽에서 우세했는데, 그 이유는 위도 31도와 52도 사이의 사람들이 극심한 더위와 추위에서 벗어나 가장 행복했으며 다른 곳에 자신들과 똑같은 종을 잘 심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Eze, 2001). 이 중 ‘흑갈색 머리에 백인’의 외모를 지닌 종족에게는 인류의 잠재된 재능과 아름다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중부 및 북부 유럽과 같은 조건에서 발달한 종족 내 구성원들은 백인종이 되었으며 최상의 인간 조건을 대표하게 되었다. 다른 인종들은 지역 환경 조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양한 종류로 퇴화한 산물이었으며, 건조한 열은 성격과 잠재력을 가장 많이 고갈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Eze, 1995, 2001). 칸트는 지역적 상황이 특정 피부색을 만들어낸다고 단언했다. 칸트는 자신의 저서 『자연지리학(Physische Geographie)』에서 모든 아기는 흰색으로 태어나지만, 환경적 작용의 결과로 그들의 특징적인 흑색, 홍색 또는 황색을 띠면서 몇 주 안에 색이 변하는 것이라고 기술했다(Eze, 1995). 피부색은 인종의 표식이자 타고난 성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증거였던 셈이다(Eze, 1995).

## 2.2. 흑인성에 대한 설명

18세기 유럽인들과 유럽 중심적인 인종 개념에 있어 피부색은 인간 유형이나 인종을 구분하는 필수 요소이자 인종을 정의하는 핵심적 특성이었다. 인종적 복합체에 포함된 다른 모든 속성은 그것이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또는 심리적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결국 피부색에 따라 달라졌다.

지정된 인간 그룹의 수와 이름은 달랐으나, 계몽주의의 다양한 분류는 인류를 밝은 피부

색의 유럽인과 그 외의 모든 사람, 즉 ‘백인’ 과 ‘비백인’ 으로 나누는 본질적인 이분법만은 공유하고 있었다. 유럽의 자연학자들과 철학자들은 탐험가와 상인의 기록을 열렬히 읽었으며, 때로는 1357년에서 1371년 사이에 유포된 『맨더빌 여행기(*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로 알려진 모음집을 포함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여행자 이야기도 읽었다 (Price, 1997). 특히 영향력이 컸던 것은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탐험가들이 쓴 일기였다 (Cole, 1972). 이 거대한 여행 문헌의 순 효과는 16세기까지 비서구에 대한 유럽인들의 태도를 정형화시켰다(Cole, 1972). 이 모음집에 수록된 먼 이국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겉보기에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외모에 대한 선입견과 명시적인 가치 판단에 크게 치우쳐 있었다. 유럽인들은 주로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극도로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검은색에 놀랐고 감정적 혼란을 겪으며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다 (Cole, 1972; Jablonski, 2012b). 중세 후반까지만 해도 검은색은 악 또는 선천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사의한 것들을 연상시켰으며 선함, 바람직함, 정직함과 관련된 흰색이나 밝음과 대조되는 것이었다(Cole, 1972; Eze, 1995; Jablonski, 2012b). 어두운 피부는 반사적으로 의심, 불신, 식인 풍습과 사악함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과 관련된 경멸적인 것을 떠올리게 했으며, 열등함에 대한 즉각적인 연상을 끌어냈다(Cole, 1972; Eze, 1995; Jablonski, 2012b). 린네, 뷔퐁과 칸트의 색상을 기반으로 한 분류는 다름에 대한 것, 특히 ‘검은색’ ‘흰색’ 과 빛, 선에 대비되는 악, 열등함, 도덕적 부정을 의미하거나 구현한 것으로 보는 사고 체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었다(Cole, 1972; Eze, 1995).

17세기와 18세기 유럽의 사상가들에게 비백인의 조건은 신체적, 도덕적 관점에서 모두 설명되어야 했다. 해부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아프리카인이 지닌 흑색 피부에 대해 명확한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17세기 초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다(Curran, 2011). 이와 관련하여 이탈리아 해부학자 마르첼로 말피기(Marcello Malpighi, 1628-1694)의 조직학 연구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피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아프리카 층위(African layer)’의 피부를 꼭 집어서 가리켰기 때문에 이 점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Curran, 2011). 해부학적 관심은 1739년 보르도 왕립 과학 아카데미가 ‘흑인(nègres)의 피부색, 머리카락의 특징, 그리고 흑인과 백인의 퇴행에 대한 물리적 원인’ 과 관련한 최고의 논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더욱 고조되었다(Curran, 2011, p.2). 보르도 상은 흑인의 해부학적 기원과 위상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쉽게 충족되지는 않았다. 유럽과 미국 식민지의 진취적인 해부학자들은 새로 발명된 현미경 도구를 사용하여 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이어 나갔다. 윌리엄 헌터(William Hunter), 새뮤엘 스탠호프 스미스(Samuel Stanhope Smith), 요한 프리드리히 메켈(Johann Friedrich Meckel) 등의 연구 결과는, 흑담즙이 피부와 기타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퇴행성 증상을 뷔퐁과 칸트에게 알려주었다(Curran, 2011).

칸트는 피부색이 이성적 우월성이나 열등함을 표현하고 증명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백인이란 유일하게 재능이 넘치고 학습과 자기 계발이 가능한 자아실현적인 사람들이었다. 다른 그룹, 특히 흑인은 ‘훈련’에만 적합했는데, 그 훈련이란 바로 체벌을 의미했다(Eze, 1995). 칸트는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의 견해를 지지하고 넓혀나가 다음과 같이 적었다:

흄은 재능을 보여준 흑인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기는 한지 예를 들어 보라면서, 고국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된 수십만 명의 흑인 중 많은 수가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그중 단 한 명도 예술이나 과학에서 뛰어남을 보여주거나 기타 칭찬할 만한 자질을 가진 흑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백인 중 일부는 가장 낮은 하층민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고, 뛰어난 재능으로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 두 종족의 차이는 인간에게 매우 기본적이며, 피부색만큼이나 정신적 능력에서도 분명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Kant; Eze, 1995, p.222에서 인용).

칸트는 흑인의 열등함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 혈안이 되었는데, 개인적인 경험이나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한 인종의 영속적인 특성들은 불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 근거한 것들이었다(Bernasconi, 2002). 인종에 대한 칸트의 저술은 광범위하고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저술은 인종의 본질과 위계적 분류를 명시하고 백인의 우월적 지위와 흑인의 열등한 지위를 공고히 했다(Bernasconi, 2002; Eze, 1995). 칸트는 아프리카인 동산 노예제의 본질과 규모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의 윤리 원칙이 이 제도에 대해 암묵적으로도 지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노예제를 거부하지는 않았다(Bernasconi, 2002). Bernasconi(2002)는, 칸트가 아프리카인이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모든 재능과 기질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유럽 백인의 우월성, 아프리카 흑인의 열등함, 인종 계층의 불변성에 관한 흙과 칸트의 저술은 18세기 중후반부터 유럽과 미국의 정부 지도자와 사업 관계자들의 관점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흙과 칸트의 저술작업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인의 노예 재산제가 한창이던 시기에 인간의 자연 질서 개념을 강화함으로써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이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공격을 받았을 때조차 이를 지속시키는 정당성을 부여했다(Bethencourt, 2013; Guenther, 2011; Jablonski, 2012b; Sussman, 2014). 인종의 불변성과 엄격한 인종 위계에 대한 칸트의 견해에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칸트의 생애 동안과 그 이후에 다른 영향력 있는 학자들은 인간의 다양성과 분류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글을 썼다. 요한 고트프리트 폰 헤르더(Johann Gottfried von Herder, 1744~1803)와 요한 프리드리히 블루멘바흐(Johann Friedrich Blumenbach, 1752~1840)는 피부색, 두개골 형태, 그리고 다른 신체적 특징을 포함한 인간 변이 연구를 관찰한 결과, 인종 간에 자연적인 단계적 차이가 존재하고 인종 분류가 임의적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했다(Bethencourt, 2013). 폰 헤르더의 “색은 서로에게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Die Farben verlieten sich in einander)” (Von Herder & Luden, 1828, p.248)라는, 오늘날 우리가 피부색의 연속 변이를 묘사하는 것에 대한 그의 연상적인 표현은 특히 인상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저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그들조차도 유럽 규범과 관련한 타자성을 설명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Eze, 2001). 흑인은 설명해야 했지만, 백인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피부색에 따른 인종의 본질과 질서에 대한 사고방식은 18세기 말까지 굳어져 갔다(Curran, 2011). 그러한 사고방식은 에드워드 롱(Edward Long, 1734-1813)의 『자메이카의 역사(History of Jamaica)』 (Long, 1774)처럼 널리 배포된 저서에 의해 더 뒷받침되었다. 그는 ‘니그로는 종류(kind)가 아닌 종(species)의 차원에서 나머지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Long, 1774, p.375).

유럽 백인과 아프리카 흑인 사이의 근원적이고 태생적인 구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흙의 저술을 강화했으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은 독자를 사로잡았다. 아프리카인 노예를 소유한 사

랍들(Jablonski, 2019)을 포함하여 영어권의 미국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에게 흠의 글이 끼친 영향력은 상당했다(Lutz, 1984). 그 결과 ‘이분법적 인종주의(bi-racialism)’로 분류되는 개념의 발전, 그리고 백인성과 흑인성으로 나뉜 현실이 훗날 그 뒤를 잇게 되었다(Guterl, 2001). 이 설명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18세기 말에 서양 문명과 상업세계가 인종 차별화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회적 현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피부색에 따라 인종을 계층적으로 배열하고 개념을 조장한 많은 세력과 사람들의 상호 작용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식을 변화시킨 다양한 영향력은 지난 250년의 세계사에서 인종이 정의되고 사용된 모든 방식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Chaplin, 2018). 인종화라는 세계적 징후 중 하나는 과학적 인종주의라고 불리는 것이었다. 우리가 되짚어 봐야 할 중요한 사안은 바로 인종이 과학에서 출발했다는 점이다.

### 2.3. 백인성의 정당화

18세기 후반부터 인종의 구별과 백인의 우월성은 과학적 조사에서 종교 논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이들 중 다수는 노예제를 떠받들기 위한 공헌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더 다양한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히 아메리카와 남아프리카에서 빠르게 퍼지고 일반화되었다(Bethencourt, 2013; Chaplin, 2018; Smedley & Smedley, 2012; Sussman, 2014). 인종에 대한 믿음(인종본질주의)과 특정 인종의 우월성(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은 다른 연구물에서 상세히 연구되고 논의된 바 있다(예: Bethencourt, 2013; Maré, 2018; Smedley & Smedley, 2012; Stanton, 1960; Sussman, 2014). 이 논문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피부색에 함의된 의미에 사상이 끊임없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Gergen, 1968), 그리고 인종적 고정관념과 관련한 ‘컬러 밈(color memes)’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것이다(Jablonski, 2012c).

19세기 아메리카 대륙에서 노예무역과 노예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사람들은 ‘본연의’ 인종으로 분리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인종 혼합이 매우 널리 분포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분리는 실용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점점 더 어려운 일이 되어갔다. 인종 혼합의 부자연스러움과 위험성은 칸트(Eze, 1995)에 의해 비난받았지만, 인종 혼합으로 인한 ‘오염(contamination)’은 16세기 이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식민지였던 신대륙, 인도, 동남아시아, 멜라네시아의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여러 세대를 거쳐 논의되어왔던 문제였다(Samson, 2005). 인종 현상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국면 중 하나는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노예제가 폐지되기 전 바로 미국에서 일어났다. 노예제라는 특수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진 것도 이때였다(Eberhardt & Fiske, 1998; Jablonski, 2012b). 동산 노예제의 입장에서 ‘한 방울 법칙’을 도입한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조상 중 ‘흑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흑인으로 간주하여 노예가 되게 하는 체제였기 때문이다(Brown, 2014; Eberhardt & Fiske, 1998; Jablonski, 2012b; Sussman, 2014). ‘한 방울 규칙’이 널리 알려지게 된 상황에서, 인종 정체성을 가시적으로 구분시켰던 피부색은 이제 더이상 인종 분류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었다. 단지 과거의 흑인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미국 인구에 흑인(black)이 아닌 ‘흑인(black)’ 7)이 많다는 사실은 피부색에 집착하던

7) 역자주: 후자의 black은 흑인의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섞인 사람을 일컫는다.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다. 남북전쟁(1861~1865) 이후 재건 시대(1863~1877)와 짐 크로 시대(Jim Crow, 1877-195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에서 ‘한 방울 규칙’ 이 미친 사회 심리학적 영향력은 상당했다. 주로 피부색의 세심한 검사와 비교를 통해 아프리카 혈통을 발견하는 것은 가족과 기관의 관심사가 되었고(Jablonski, 2012a) 백인으로 ‘통과’ 될 수 없는 개인과 그럴 수 있는 개인에게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Broyard, 2007; Byrd & Gates Jr., 2011). 백인의 우월성에 대한 광범위한 믿음으로 인한 해로운 부수효과 중 하나는 많은 나라와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서 컬러리즘이 발전하고 계속 그 중요성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백인이 아닌 비유럽인 그룹 내에서 밝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어두운 피부를 가진 사람보다 선호된다는 믿음은 보편적이다(Dixon & Telles, 2017; Hall, 1998; Hunter, 2007, 2013; Jablonski, 2012b; Norwood & Foreman, 2014; Russell 외, 1992).

19세기 중후반에 피부색은 여전히 인종의 분류 및 정의와 연관되었지만 더는 핵심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두개골의 모양과 크기는 타고난 지적 재능과 더 직결되는 대표적인 특징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끌었다(Morton, 1839; Nott & Gliddon, 1854). 이러한 추세는 다윈(Darwin)의 『종의 기원(Origin of Species)』이 출간되고 유럽과 미국에서 사회적 다윈주의와 우생학이 점진적으로 부상한 직후부터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Bethencourt, 2013; Montagu, 1964; Smedley & Smedley, 2012; Stanton, 1960; Sussman, 2014). 피부색은 계속해서 인종적 차이를 나타내는 표식이 되었지만, 인종 과학에서 피부색의 중요성은 그 자체로 능력과 잠재력의 척도라기보다는 우월한 ‘순수 인종’ 또는 열등한 ‘혼혈 인종’을 나타내는 지표로 자리했다. 인종적 순수성에 대한 비유(Segal, 1991)에서 퍼진 악영향은, 20세기에 일어난 세계적인 사건들과 과학에 파국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주목을 받을 만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Bethencourt, 2013; Brace, 2005; Ehrlich & Feldman, 1969; Fuentes, 2012; Graves Jr., 2003; Littlefield 외, 1982; Nicosia & Huener, 2008; Sanjek, 1994; Shipman, 1994; Smedley & Smedley, 2005, 2012; Sussman, 2014; Wade, 2002; Wolpoff & Caspari, 1997).

제2차 세계대전 후, 특히 피부색은 인류가 다양한 기후에 적응했다고 본 하나의 예증으로, 인간의 신체적인 다양성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었다(Cole, 1965; Coon, 1965, 1982). 그러나 진화 메커니즘이 지닌 세부 사항들은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으며, 미국에서 계속되는 인종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인간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에의 요구(Mead, 1968)는 수십 년 후까지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인종 분류 또는 ‘인구 집단 설명(population group descriptions)’은 인종이라는 라벨과 함께 미국, 남아프리카, 브라질 및 기타 지역을 포함한 많은 정부에서 공식적인 맥락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Petruccelli, 2015; Revisions to the Standards for the Classification of Federal Data on Race and Ethnicity, 1997; Statistics South Africa, 2016). 이러한 명칭은 19세기에 널리 사용된 피부색을 기반으로 한 인종 분류와 인종 라벨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를 사용하는 것은 대개 인권 보고 지침을 준수한다는 맥락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다. 인종 분류의 단점을 인식한 일부 정부에서는 인종 분류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축소했고(Lieberman, 2001) 질병의 위험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활용했다. 긍정적인 사회와 경제를 이유로, 인종 분류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널리 검토되고 논의되어왔지만(예: Harris & Lieberman, 2015; Maré, 2011; Prewitt, 2013) 이 논문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다. 그러나 미국 및 기타 지역의 생의학 연구에서 표준화된 인종 분류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임상 치료 상황

과 생의학 연구에서 특히 ‘코카서스인(Caucasian)’ 과 같은 오래된 인종 명칭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이 논문의 맥락과 관련되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립 보건원에서는 ‘백인’ 및 ‘흑인’ 의 범주를 포함한 표준 인종 및 민족 분류(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15)를 사용하고 있다. 생의학 연구에서 인종 분류와 인종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문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Bradby, 2012; Duster, 2005; Witzig, 1996). 이러한 범주와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명백한 문제 중 하나는 사람들이 변이의 중첩 범위와 기능적으로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인종을 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은 인간 변이의 패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하는 것이며, 우리 종의 생물학적이고 진화적인 실재를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 과학, 특히 생의학 연구 및 의료 행위에서 인종 분류 및 인종 라벨 사용에 수반되는 다른 많은 문제 중에는 인종 라벨의 의미론과 부정적인 심리적 연관성을 둘러싼 문제도 있다. 인종과 관련된 용어는 의도하지 않아도 경멸적인 사용과 부정적인 것을 연상시키는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에, 임상, 과학자와 대중이 가치 중립적인 맥락에서 데이터를 생성하고 결과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Chaplin & Jablonski, 2020).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범주와 이름이 종종 잠재의식 수준에서 낡고 잘못된 인종적 고정관념과 위계를 환기하고 재창조하며, 과학 연구원을 포함한 사람들이 서로와 연구 대상을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 철학자 John Searle(1995)과 Ian Hacking(1995, 2005, 2006)에 의해 심도 있게 연구되었는데, 이들은 인종과 관련하여 현실을 구성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언어의 힘을 특히 강조했다. 인간 유전학자를 비롯한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에 인종 범주와 인종 명칭이 미묘한 영향을 끼치며 지식 인프라를 구성한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다(Bliss, 2012).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현상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하나의 문제점이다.

현대 과학에서는 인종주의적 개념이 이제 많지 않다고는 하나 인종 라벨이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2020년 10월에 실행된 펍메드(PubMed) 검색에서 1971년부터 2020년까지 ‘코카서스인’ 이 114,252회 이상 검색되었고 (그림 2), 가장 많이 검색된 연도가(연간 6000회 이상) 2011년부터 2017년 사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생의학 연구 및 임상 의학의 많은 분야는 ‘코카소이드(Caucasoid)’ (1971년 이후 66,778회 발생), ‘니그로이드(Negroid)’ (1971년 이후 81,399회 발생) 및 ‘몽골로이드(Mongoloid)’ (1971년 이후 72,542회 발생)와 함께 ‘코카서스인’ 을 제도적으로 사용하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 ‘코카서스인’ 은 유색 인종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명칭인데, 사회에서 우세한 집단에 붙는 라벨은 정상적이고 표준적이며 비하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유전학과 유전체학이 이러한 중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아직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생체 의학 연구를 포함하여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은 관심 있는 표현 형질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더불어 그러한 표현 형질이 어떻게 유전자 표지와 자기 동일시와 연관되는지를 최대한 설명함으로써(Klimentidis 외, 2009; Parra 외, 2004) 형질, 유전자 및 인종 라벨을 구분하는 과정을 출발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이 오늘날의 자가 식별과 진료실에서 ‘눈으로만 보는’ 진단법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Braun 외, 2007), 과학적인 결과는 더 정확하고 예측 가능하며 더 바람직한 사회적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다.

### 3. 인종과 관계없는 피부색

피부색의 차이와 원인에 대한 사람들 간의 관심은 수 세기 동안 존재해 왔으며, 피부색에 따라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분류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 강한 햇빛과 어두운 피부 사이의 연관성은 고대에도 존재했으며(Snowden Jr., 1970), 체액 이론과 함께 피부색의 기후 이론이 발전하면서 수 세기에 걸쳐 더욱 공식화되었다(Jablonski, 2012b). 피부색의 과학적 근거를 이해하려는 관심은 피부색, 특히 검은 피부를 만드는 요인과 구조를 알고자 하는 열망과 피부를 더 어둡거나 밝아지게 하는 과정을 이해하려는 관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러한 연구를 수행한 17세기와 18세기의 많은 과학자 중에서 새뮤얼 스탠호프 스미스(Samuel Stanhope Smith, 1751-1819)는 피부색을 만드는 물리적, 생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관심을 기울인 인물로 주목할만하다. 그의 전임자 및 동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스미스는 흑색 담즙이 검은 피부색의 원인이라고 믿었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은 일조량의 차이가 피부의 흑색 담즙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이다(Smith & Jordan, 1965). 한 발 더 앞서나가, 그는 피부색의 변화가 일조량과 위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지적한 바 있다(Smith & Jordan, 1965). 그는 중국처럼 다양한 위도에 걸쳐 있으면서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나라에서 색의 변화가 더 두드러진다는 것을 관찰했다(Smith & Jordan,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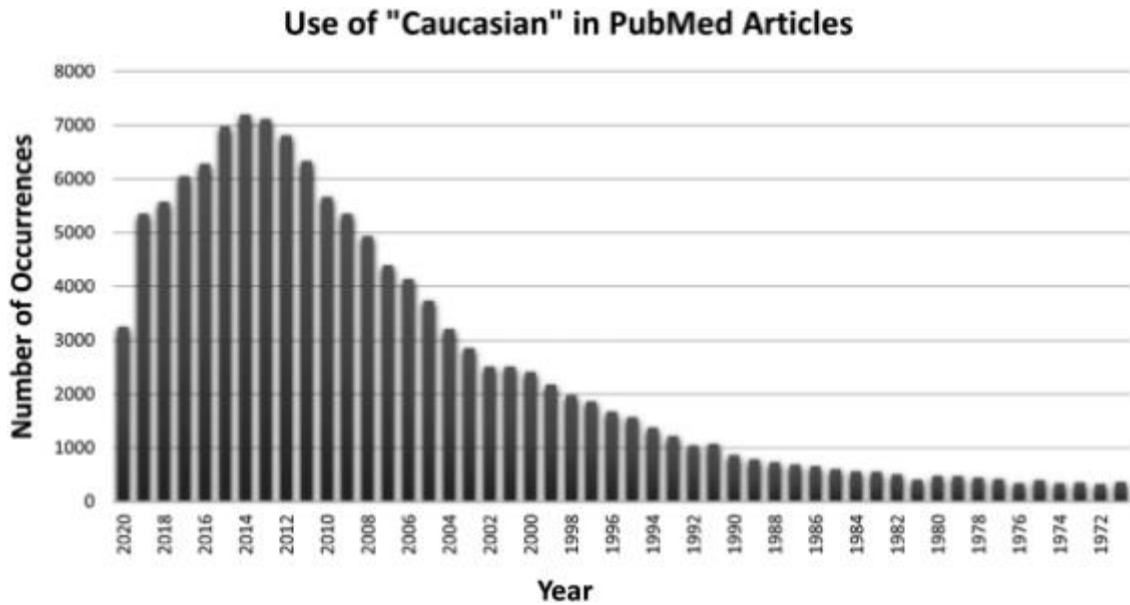


그림 2 이 그래프는 1971년부터 2020년까지(2020년 10월 23일 기준) PubMed에서 ‘코카서스인’ 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횟수를 보여준다. PubMed 검색 엔진은 생명 과학 및 생의학 분야의 참고문헌 및 초록을 포함한 MEDLINE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다. 1997년부터 PubMed는 온라인으로 대중에게 무료로 공개되었으며, 기관 도서관을 통해 MEDLINE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1971년부터 1997년까지의 이전 기록은 이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었다.

인간피부색의 다양성 진화에 있어서 ‘인종에 제약을 두지 않는(Race-free)’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역사는 최근 다양한 논문에서 검토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Jablonski, 2004, 2010, 2012a, 2012b; Jablonski & Chaplin, 2000). 최근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는 인류가 분산되는 과정에서 피부색의 진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 (고생물학을 포함한)해부학, 생리학, 기후학 및 유전학적 증거를 통합한 것이다. 자외선의 강도와 계절성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피부색 변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Chaplin, 2004; Chaplin & Jablonski, 2002; Jablonski, 2004; Jablonski & Chaplin, 2000, 2010). ‘피부색 유전자’의 수많은 종류와 다양한 작용 방식을 발견한 것은 매우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으며, 특히 일조량이 유사한 조건에서 유사한 피부색으로 수렴 진화한다는 연구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였다(Norton, 2008; Norton 외, 2007, 2016; Quillen 외, 2019). 이러한 연구와 다른 연구들은, 피부색이 인종을 특징 짓고 분류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용된 다른 특성과는 전혀 무관함을 입증한 셈이다. 이러한 발견은 인간의 피부색이 실제 또는 상상 속의 다른 인종적 특성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 4. 미래

이제 우리는 피부색 차이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진화적이고 유전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현대 인류 역사에서 피부색이 사람들을 분류하고, 인종 개념을 발전시키고, 피부색을 기반으로 한 인종 차별이 퍼져나가는 데 언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명백히 알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 체계들은 수십 년 동안 학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공유됐고, 대개 일반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통합되지는 못했다. 이 통합은 가능했으며 필요했던 것이었고, 이를 목표로 했던 시범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Berg & Stanford, 2018; Wright 외, 2017; Wright 외, 2019).

피부색과 사람의 행동 및 잠재력 간의 지속적인 연관성은, 계속해서 대다수 국가의 인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컬러 밈과 인종 서식을 없애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Jablonski, 2012c; Maré, 2018), 이는 전 세계 정부 지도자들이 아이들에게 피부색과 인종의 본질에 대해 교육하고, 인류 공동체에서 인종 차별의 구조적인 유산을 해체하려는 노력과 함께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에는 막대한 예산과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며, 인간 다양성과 관련한 어휘에는 경멸적인 연상을 불러일으키는 서술어들만 가득하고, 유용하면서도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므로 이제라도 인간 차이에 대한 새로운 어휘들이 만들어져야 한다(Chaplin & Jablonski, 2020). 자연과학자들과 사회과학자들의 역할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추구해야 할 가능한 방안들을 탐구하고 제시하는 데 있다.

## 저자 기여도

니나 자블론스키: 개념화, 초안 작성, 초안 검토 및 편집

## 이해관계 충돌

저자는 상충하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 ORCID

Nina G. Jablonski <https://orcid.org/0000-0001-7644-874X>

## <참고문헌>

- Barbujani, G. (2005). Human races: Classifying people vs understanding diversity. *Current Genomics*, 6(4), 215-226. <https://doi.org/10.2174/1389202054395973>.
- Bastide, R. (1968). Color, racism, and christianity. In J. H. Franklin (Ed.), *Color and race* (pp. 34-49). Beacon Press.
- Berg, K., & Stanford, C. (Producer). (2018). Finding Your Roots: The Seedlings. Retrieved from <http://www.fyrclassroom.org/index.html>
- Bernasconi, R. (2001). Who invented the concept of race? Kant's role in the enlightenment construction of race. In R. Bernasconi (Ed.), *Race* (pp. 11-36). Blackwell Publishers Ltd..
- Bernasconi, R. (2002). Kant as an unfamiliar source of racism. In J. K. Ward & T. L. Lott (Eds.), *Philosophers on race: Critical essays* (pp. 145-166). Blackwell Publishing Ltd.
- Bernasconi, R., & Lott, T. L. (Eds.). (2000). *The idea of race*. Hackett Publishing Company Inc.
- Bethencourt, F. (2013). *Racisms: From the crusades to the twentieth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lanckaert, C. (1993). Buffon and the natural history of man: Writing history and the 'foundational myth' of anthropology. *History of the Human Sciences*, 6(1), 13-50. <https://doi.org/10.1177/095269519300600102>.
- Bliss, C. (2012). *Race decoded: The genomic fight for social justice*.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2000). *Pascalian meditations*. Stanford University Press.
- Brace, C. L. (2005). "Race" is a four-letter word: The genesis of the concept. Oxford University Press.
- Bradby, H. (2012). Race, ethnicity and health: The costs and benefits of conceptualising racism and ethnicity. *Social Science & Medicine*, 75(6), 955-958. <https://doi.org/10.1016/j.socscimed.2012.03.008>.
- Braun, L., Fausto-Sterling, A., Fullwiley, D., Hammonds, E. M., Nelson, A., Quivers, W., Reverby, S. M., & Shields, A. E. (2007). Racial categories in medical practice: How

- useful are they? *PLoS Medicine*, 4(9), e271. <https://doi.org/10.1371/journal.pmed.0040271>.
- Broberg, G. (1983). *Homo sapiens*: Linnaeus's classification of man. In T. Frangmyr (Ed.), *Linnaeus: The man and his work* (pp. 156-194).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rown, K. D. (2014). The rise and fall of the one-drop rule: How the importance of color came to eclipse race. In K. J. Norwood (Ed.), *Colormatters: Skin tone bias and the myth of a post-racial America* (pp. 44-94). Routledge.
- Broyard, B. (2007). *One Drop*. Little, Brown and Company.
- Buffon, G. L. L. (1853). Of the apparent varieties of the human species. In *Buffon's natural history of man, the globe, and of quadrupeds* (pp. 118-156). Leavitt & Allen.
- Byrd, R. P., & Gates, H. L., Jr. (2011). Jean Toomer's conflicted racial identity.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57(23), B5-B8. Retrieved from <http://chronicle.com/article/Jean-Toomers-Conflicted/126184/>.
- Chaplin, G. (2004). Geographic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human skin coloration.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25(3), 292-302. <https://doi.org/10.1002/ajpa.10263>.
- Chaplin, G. (2018). An informational taxonomy of race-ideation. In N. G. Jablonski & G. Maré (Eds.), *The effects of race* (pp. 109-138). AFRICAN SUN MeDIA.
- Chaplin, G., & Jablonski, N. G. (2002). Environmental correlates of human skin color, revisited.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17 (S34), 53-59. <https://doi.org/10.1002/ajpa.20010>.
- Chaplin, G., & Jablonski, N. G. (2020). Semantics in the philosophy of race. In N. G. Jablonski (Ed.), *Persistence of race* (pp. 143-154). AFRICAN SUN MeDIA.
- Cole, R. G. (1972). Sixteenth-century travel books as a source of European attitudes toward non-white and non-western cultur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16(1), 59-67.
- Cole, S. (1965). *Races of man* (2nd ed.).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Natural History).
- Coon, C. S. (1965). *The living races of man*. Alfred A. Knopf.
- Coon, C. S. (1982). *Racial adaptations*. Nelson-Hall Inc.
- Curran, A. S. (2011). *The anatomy of blackness: Science and slavery in an age of enlightenment*.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e Bary, W. T., Hay, S. N., Weiler, R., & Yarrow, A. (1958). *Sources of Indian tradi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 Dikotter, F. (1992). *The discourse of race in modern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 Dixon, A. R., & Telles, E. E. (2017). Skin color and colorism: Global research, concepts, and measurement. *Annual Review of Sociology*, 43(1), 405-424. <https://doi.org/10.1146/annurev-soc-060116-053315>.
- Duster, T. (2005). Race and reification in science. *Science*, 307(5712), 1050-1051. <https://doi.org/10.1126/science.1110303>.
- Eberhardt, J. L. (2005). Imaging race. *American Psychologist*, 60(2), 181-190.

- <https://doi.org/10.1037/0003-066X.60.2.181>.
- Eberhardt, J. L., & Fiske, S. T. (1998). *Confronting racism: The problem and the response*. Sage Publications.
- Eberhardt, J. L., Goff, P. A., Purdie, V. J., & Davies, P. G. (2004). Seeing black: Race, crime, and visual proces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6), 876-893. <https://doi.org/10.1037/0022-3514.87.6.876>.
- Ehrlich, P. R., & Feldman, S. S. (1969). *The race bomb: Skin color, prejudice, and intelligence*. Quadrangle/The New York Times Book Co.
- Eze, E. C. (1995). The color of reason: The idea of "race" in Kant's anthropology. *The Bucknell Review*, 38(2), 200-241.
- Eze, E. C. (Ed.). (2001). *Race and the enlightenment: A reader*. Blackwell Publishers Inc.
- Franklin, J. H. (1969). *Color and race*. Beacon Press.
- Fuentes, A. (2012). *Race, monogamy, and other lies they told you: Busting myths about human na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ergen, K. J. (1968). The significance of skin color in human relations. In J. H. Franklin (Ed.), *Color and race* (pp. 112-128). Beacon Press.
- Graves, J. L., Jr. (2003). *The Emperor's New Clothes: Biological Theories of Race at the Millennium*. Rutgers University Press.
- Greene, J. C. (1954). Some early speculations on the origin of human races. *American Anthropologist*, 56(1), 31-41.
- Guenther, M. (2011). A peculiar silence: The Scottish enlightenment, political economy, and the early American debates over slavery. *Atlantic Studies*, 8(4), 447-483. <https://doi.org/10.1080/14788810.2011.611723>.
- Guterl, M. P. (2001). *The color of race in America, 1900-1940*. Harvard University Press.
- Hacking, I. (1995). The looping effects of human kinds. In D. Sperber, D. Premack, & A. J. Premack (Eds.), *Causal cognition: A multi-disciplinary debate* (pp. 351-383). Clarendon Press.
- Hacking, I. (2005). Why race still matters. *Daedalus*, 134(1), 102-116. <https://doi.org/10.1162/0011526053124460>.
- Hacking, I. (2006). Genetics, biosocial groups & the future of identity. *Daedalus*, 135(4), 81-95. <https://doi.org/10.1162/daed.2006.135.4.81>.
- Hall, R. E. (1998). Skin color bias: A new perspective on an old social problem. *The Journal of Psychology*, 132(2), 238-240.
- Harris, F. C., & Lieberman, R. C. (2015). Racial inequality after racism: How institutions hold back African Americans. *Foreign Affairs*, 94(2), 9-20.
- Hippocrates, & Adams, F. (1849). In F. Adams (Ed.), Trans. *The genuine works of Hippocrates*. William Wood & Co.
- Hunter, M. L. (2007). The persistent problem of colorism: Skin tone, status, and inequality. *Sociology Compass*, 1(1), 237-254. <https://doi.org/10.1111/j.1751-9020.2007.00006.x>.
- Hunter, M. L. (2013). The consequences of colorism. In R. E. Hall (Ed.), *The melanin*

- millennium: Skin color as 21st century international discourse* (pp. 247-256). Springer Netherlands.
- Isaac, B. (2004). *The invention of racism in classical antiqu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ablonski, N. G. (2004). The evolution of human skin and skin color.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3, 585-623. <https://doi.org/10.1146/annurev.anthro.33.070203.143955>.
- Jablonski, N. G. (2010). Skin coloration. In M. I. Muehlenbein (Ed.), *Human evolutionary biology* (pp. 192-21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blonski, N. G. (2012a). The evolution and meaning of human skin color variation. In A. H. Goodman, Y. T. Moses, & J. L. Jones (Eds.), *Race: Are We So Different?* (pp. 106-108). Wiley Blackwell.
- Jablonski, N. G. (2012b). *Living color: The biological and social meaning of skin colo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ablonski, N. G. (2012c). The struggle to overcome racism. *New Scientist*, 2880, 26-29.
- Jablonski, N. G. (2019). Human races owe their reality to inaccurate historical concepts of variation not genes.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68(S68), 112-283. <https://doi.org/10.1002/ajpa.23802>.
- Jablonski, N. G., & Chaplin, G. (2000). The evolution of human skin coloration. *Journal of Human Evolution*, 39(1), 57-106. <https://doi.org/10.1006/jhev.2000.0403>.
- Jablonski, N. G., & Chaplin, G. (2010). Human skin pigmentation as an adaptation to UV radi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Supplement 2), 8962-8968. <https://doi.org/10.1073/pnas.0914628107>.
- Klimentidis, Y. C., Miller, G. F., & Shriver, M. D. (2009). Genetic admixture, self-reported ethnicity, self-estimated admixture, and skin pigmentation among Hispanics and native Americans.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38(4), 375-383. <https://doi.org/10.1002/ajpa.20945>.
- Kowner, R., & Skott, C. (2015). East Asians in the Linnaean taxonomy: Sources and implications of a racial lineage. In R. Kowner & W. Demel (Eds.), *Race and racism in modern East Asia: Interactions, nationalism, gender and lineage* (pp. 23-54). Brill.
- Lieberman, R. (2001). A tale of two countries: The politics of color blindness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French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19(3), 32-59. <https://doi.org/10.3167/153763701782370055>.
- Linnaeus, C. (1735). *Systema Naturæ, Sive regna Tria Naturæ Systematice Proposita per classes, Ordines, genera, & species. Editio Princeps*. Apud Theodorum Haak: Ex Typographia Joannis Wilhelmi de Groot.
- Linnaeus, C. (1758). *Systema Naturae per regna Tria Naturae: Secundum classes, Ordines, genera, species, cum Characteribus, Differentiis, Synonymis, Locis. Editio Decima, Reformata*. Laurentii Salvii.
- Linnaeus, C. (1766). *Systema Naturae per regna Tria Naturae: Secundum classes, ordines, genera, species, cum characteribus, differentiis, synonymis, locis. editio duodecima, reformata*. Laurentii Salvii.

- Littlefield, A., Lieberman, L., & Reynolds, L. T. (1982). Redefining race: The potential demise of a concept in physical anthropology. *Current Anthropology*, 23(6), 641-654.
- Long, E. (1774). *The history of Jamaica* (Vol. 2). Printed for T. Lowndes.
- Lutz, D. S. (1984). The relative influence of European writers on late eighteenth-century American political though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1), 189-197. <https://doi.org/10.2307/1961257>.
- Maré, G. (2011). Broken down by race...': Questioning social categories in redress politics. *Transformation: Critical Perspectives on Southern Africa*, 77, 62-79. <https://doi.org/10.1353/trn.2011.0037>.
- Maré, G. (2018). Templates of ordering and maintaining the social: Racial identities and consequences. In N. G. Jablonski & G. Maré (Eds.), *The effects of race* (pp. 69-88). AFRICAN SUN MeDIA.
- Marks, J. (2007). Long shadow of Linnaeus's human taxonomy. *Nature*, 447(7140), 28-28. Retrieved from. <https://doi.org/10.1038/447028a>. McCoskey, D. E. (2012). *Race: Antiquity and its legacy*. Oxford University Press.
- Mead, M. (1968). Introductory remarks. In M. Mead, T. Dobzhansky, E. Tobach, & R. E. Light (Eds.), *Science and the concept of race* (pp. 3-12). Columbia University Press.
- Mead, M., Dobzhansky, T., Tobach, E., & Light, R. E. (1968). *Science and the concept of race*. Columbia University Press.
- Molnar, S. (2005). *Human variation: Races, types, and ethnic groups* (6th ed.). Pearson Prentice Hall.
- Montagu, M. F. A. (1964). *Man's Most dangerous myth: The fallacy of race* (4th ed.). World Press.
- Morton, S. G. (1839). *Crania Americana: Or, a comparative view of the skulls of various aboriginal nations of north and South America*. John Penington.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2015). Racial and Ethnic Categories and Definitions for NIH Diversity Programs and for Other Reporting Purposes. Retrieved from <https://grants.nih.gov/grants/guide/notice-files/not-od-15-089.html>
- Nicosia, F. R., & Huener, J. (2008). *Medicine and medical ethics in Nazi Germany: Origins, practices, legacies*. Berghahn Books.
- Norton, H. L. (2008). Evolution of skin pigmentation differences in humans. In D. N. Cooper & H. Kehrer-Sawatzki (Eds.), *Handbook of human molecular evolution* (pp. 1118-1127). John Wiley and Sons.
- Norton, H. L., Edwards, M., Krithika, S., Johnson, M., Werren, E. A., & Parra, E. J. (2016). Quantitative assessment of skin, hair, and iris variation in a diverse sample of individuals and associated genetic variation.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60(4), 570-581. <https://doi.org/10.1002/ajpa.22861>.
- Norton, H. L., Kittles, R. A., Parra, E., McKeigue, P., Mao, X., Cheng, K., Canfield, V. A., Bradley, D. G., McEvoy, B., & Shriver, M. D. (2007). Genetic evidence for the convergent evolution of light skin in Europeans and east Asians. *Molecular*

- Biology and Evolution*, 24(3), 710-722. <https://doi.org/10.1093/molbev/msl203>.
- Norwood, K. J., & Foreman, V. S. (2014). The ubiquitousness of colorism: Then and now. In K. J. Norwood (Ed.), *Color matters: Skin tone bias and the myth of a post-racial America* (pp. 9-28). Routledge.
- Nott, J. C., & Gliddon, G. R. (1854). *Types of mankind*. Lippincott, Grambo & Co.
- Omi, M., & Winant, H. (1994). *Racial 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2nd ed.). Routledge.
- Parra, E. J., Kittles, R. A., & Shriver, M. D. (2004). Implications of correlations between skin color and genetic ancestry for biomedical research. *Nature Genetics*, 36(11 Suppl), S54-S60.
- Petrucelli, J. L. (2015). Brazilian Ethnoracial classification and affirmative action policies: Where are we and where do we go? In P. Simon, V. Piché, & A. A. Gagnon (Eds.), *Social statistics and ethnic diversity: Cross-National Perspectives in classifications and identity politics* (pp. 101-109).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Prewitt, K. (2013). *What is "your" race? The census and our flawed efforts to classify America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rice, D. (1997). *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 by Sir John Mandeville* (1900 ed. Vol. EBook #782).
- Quillen, E. E., Norton, H. L., Parra, E. J., Lona-Durazo, F., Ang, K. C., Illiescu, F. M., Pearson, L. N., Shriver, M. D., Lasisi, T., Gokcumen, O., Starr, I., Lin, Y. L., Martin, A. R., & Jablonski, N. G. (2019). Shades of complexity: New perspectives on the evolution and genetic architecture of human skin.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68 (S67), 4-26. <https://doi.org/10.1002/ajpa.23737>.
- Revisions to the Standards for the Classification of Federal Data on Race and Ethnicity, 62 C.F.R. § 58782 (1997).
- Russell, K., Wilson, M., & Hall, R. E. (1992). *The color complex: The politics of skin color among African Americans*. Anchor Books.
- Samson, J. (2005). *Race and empire*. Pearson Education Limited.
- Sanjek, R. (1994). The enduring inequalities of race. In S. Gregory & R. Sanjek (Eds.), *Race* (pp. 1-17). Rutgers University Press.
- Searle, J. R. (1995).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The Free Press.
- Segal, D. A. (1991). 'The European': Allegories of racial purity. *Anthropology Today*, 7(5), 7-9. <https://doi.org/10.2307/3032780>.
- Shipman, P. (1994). *The evolution of racism: Human differences and the use and abuse of science*. Simon & Schuster.
- Smedley, A., & Smedley, B. D. (2005). Race as biology is fiction, racism as a social problem is real: Anthropolog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ace. *American Psychologist*, 60(1), 16-26. <https://doi.org/10.1037/0003-066X.60.1.16>.
- Smedley, A., & Smedley, B. D. (2012). *Race in North America: Origins and evolution of a worldview* (4th ed.). Westview Press.

- Smith, S. S., & Jordan, W. D. e. (1965). *An essay on the causes of the variety of complexion and figure in the human specie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Snowden, F. M., Jr. (1970). *Blacks in antiquity: Ethiopians in the Greco-Roman experienc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Stanton, W. R. (1960). *The Leopard's spots: Scientific attitudes toward race in America 1815-59*.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atistics South Africa. (2016). *Community survey 2016 statistical release P0301*. Statistics South Africa Retrieved from. <http://cs2016.statssa.gov.za/>.
- Sussman, R. W. (2014). *The myth of race: The troubling persistence of an unscientific idea*. Harvard University Press.
- Svensson, M. E. (2015). How Linnaeus classified humans: Why red, white, yellow and black people were assigned particular temperaments. *Annals of the History and Philosophy of Biology*, 17(2012), 303-315.
- Von Herder, J. G., & Luden, H. (1828). *Johann Gottfried von Herder's Ideen zur Philosophie der Geschichte der Menschheit* (p. 1). Leipzig: Johann Freidrich Hartknoch.
- Wade, P. (2002). *Race, nature and culture: An anthropological perspective*. Pluto Press.
- Wheeler, R. (2000). *The complexion of race: Categories of difference in eighteenth-century British cultu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Witzig, R. (1996). The medicalization of race: Scientific legitimization of a flawed social construct.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25(8), 675-679.
- Wolpoff, M. H., & Caspari, R. (1997). *Race and human evolution*. Simon and Schuster.
- Wright, E. A., Jablonski, N. G., & Gates, H. L., Jr. (2017). *Finding your roots curriculum*.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Wright, E. A., Wagner, J. K., Shriver, M. D., Fernandez, J. R., & Jablonski, N. G. (2019). Practic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of using personal DNA tests with middle-school-aged learners. *The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104(2), 197-202. <https://doi.org/10.1016/j.ajhg.2019.01.001>.